

미주 모퉁이돌선교회 월요기도모임 기도제목(2022.6.27)

주일> 모퉁이돌선교회 광야의 소리 방송이 전파 방해 받지 않고 깨끗한 음질로 전해져 북한 전역에 예배와 기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광야의 소리 방송이 라디오 주파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의 소리 방송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배하며 신앙을 지키는 북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믿음에 견고히 서서 어떤 상황에 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지하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북녘 전역에 예배와 기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방송 사역을 담당하는 일꾼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 장 6 절과 8 절 말씀을 주신 하나님, 북한이 해외 라디오 방송을 통한 정보 유입을 막기 위해 총전력을 기울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방해 공작이 집요하게 지속되지만 ‘광야의 소리’ 방송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계속 외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북녘의 영혼이 복음을 듣고 북녘 전역에 예배와 기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월> 이스라엘 선교센터의 앱 방송과 베들레헴 라디오 방송사역이 계속 막힘없이 선포되게 하소서!

이스라엘 선교사는 현재 이스라엘에 머물며 코로나 19 사태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모 히브리어 5개 반 수업을 통해 사역언어의 진보가 있게 해 주시고, 이스라엘 선교센터의 앱 방송과 베들레헴 라디오 방송사역이 계속 막힘없이 선포되게 해 주시며, 갈멜산 선교센터의 한글교육 사역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관계와 통로가 열려 지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122 편 6 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선교사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꿈꾸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변화하는 그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과 일꾼들에게 성경을 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시편 122 편 6 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지역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화> 북한이 7 차 핵실험 준비가 무산되고, 북핵 문제가金正은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렸음을 북한 주민들이 깨닫게 하소서!

북한이 7 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된 지 석 달이 넘게 지났음에도 실제 행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치적,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풍계리 핵 실험장 3 번 갱도에 물이 찻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물이 있으면 핵 폭발 시 압력이 커져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수 있고 봉쇄 효과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여호와의 뜻만이 세워지리라” 잠언 16장 9절과 19장 21 절(북한어 성경) 말씀으로 북핵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당장 진행될 것 같던 7 차 핵실험이 여러 정치적, 기술적 요인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북핵 문제가金正은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렸음을 북한을 비롯한 온 열방이 보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이 세워지고, 그 뜻이 한반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수> 노예 노동에 시달리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하나님을 믿어 고향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현역병 신분으로 러시아에 파견돼 건설노동을 하다가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한 한 탈북민의 말에 의하면,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 확대 차원에서 2016년부터 현역 군인을 러시아에 보내졌고, 일반 근로자는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도 줘야 하지만 군인은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돈을 아낀다며 고기 대신 돼지 껌데기만 먹이면서 하루 17시간 이상 노동을 시킨다.”고 증언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 령을 둘 것이며 그들의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 그들이 나의 법규를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키며 순종하게 할 것이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11 장 19~20 절(북한어 성경) 말씀으로 외화벌이 용병으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 있는 동안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생명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사, 북한에 있는 가족과도 복된 소식을 나누는 아름다운 복음의 전령이 되게 하옵소서.

목>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생계난의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북한 주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시 안전부가 노점상 통제를 강화해 단속된 노점상을 김매기에 강제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속된 한 30 대 여성 노점상이 말하기를 “아이가 영양실조에 걸려 일어나지 못한다. 얼마라도 벌여 쌀죽이라도 먹일 수 있게 한 번만 봐 달라”라고 안전원에 사정했지만 막무가내로 농장에 보내져 김매기를 하다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노점상은 하루 벌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최하층입니다. 1g 의 쌀도 주지 않으면서 단속만 하고 있어 노점상들이 한숨만 내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보고 계십니다 참으로 당신께서 괴로움과 슬픔을 지켜보시고 손수 그것을 처리하시매 약한 자들이 당신께 몸을 맡기니 당신은 고아를 돕는 분이십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행악자의 악을 찾아낼 것이 없을 때까지 살살이 찾으소서” 시편 10 편 14~15 절(북한어 성경) 말씀으로 북한 당국의 과도한 억압 속에 곤욕을 치르며 살아가는 북한 주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괴로움과 슬픔을 주의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식량난과 생계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 만나 주사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알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금> 북한이 사이버 도둑질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기를
기도합니다.**

암호화폐 탈취를 위한 사이버 공격에 집중해 온 북한이 최근 암호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은행 등의 전통적인 금융권을 다시 해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4 월, 북한의
해킹 조직은 은행을 겨냥한 이메일 피싱 공격을 펼쳤다. 또한 유명 웹 호스팅 업체의 임시
웹사이트에 악성 문서를 올려 놓고 피해자들에게 해당 문서를 열어 보도록 유인하는
이메일을 보내서 해킹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교만과 오만과 악의 길과 외곡된 말을 내가
미워한다” 잠언 8 장 13 절(북한어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외화를 마련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치가 떨어진 가상화폐 대신 은행 등을 공격해서 외화 벌이를
계속합니다. 악을 미워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따라 북한이 도둑질을 멈추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실로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며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토> 북한에 휴대전화 사용자, 탈북민 가족 등 오지로 대거 추방하는 상황이
북한선교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북한이 작년 하반기부터 북·중 국경 지역에서 추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방 대상은 불법 외국 휴대전화 사용자, 간첩 혐의자, 탈북민 가족, 행방불명자
가족, 당정책에 불평 불만을 품은 자들입니다. 지난달에도 회령시와 무산군에 살던
40 여 세대가 길주군과 어랑군 등의 오지 농장으로 보내졌습니다. 국경봉쇄 장기화로
민심 이반 현상이 심화되자 추방 사업을 추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반체제 행위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었으니 이는 그가 나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내
오른편에 계심이라... 당신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당신의 림재로써**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 장 25 절과 28 절(북한어 성경) 말씀으로 탄압받는 북한 주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을 담보하려는 북한 당국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추방 사업으로 민심이 더욱 이반되어 북한 주민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이 주를 의지하며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 놓으신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그 생명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